

【어원 탐구】

사과참외와 참죽나무

김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총독부 발행의 《朝鮮語辭典》은 한자의 병기 없이 세 단어를 이렇게 배열해 놓고 있다(kana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

사과	林檎 <i>no</i> 果実(頻婆)
사과나무	林檎 <i>no</i> 樹
사과참외	白色 <i>no</i> 瓢瓜, 大 <i>ni site</i> 水分多 <i>si</i> (필자 번역 : 백색의 참외, 크고 수분 많음.)

‘사과’는 흔히 ‘沙果’로 적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쓰여오는 것인데, 간혹 다른 글자, 예컨대 《한불즈던》에서의 ‘査’ 같은 것을 보는 일이 있다. 위의 경우 ‘沙’의 내력에 의문이 가서인지, 한자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과나무’와 ‘사과참외’를 ‘사과’ 아래 나란히 놓고 있는 것은 두 ‘사과’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불즈던》은 ‘사과’를 둘로 분립시키고 있다.

사과 眞菘¹⁾ *Esp. de melon.*

사과 査果 *Pomme douce*

현대의 국어사전들에서는 능금 쪽의 ‘사과’에 대하여는 ‘沙果’를 붙이고 ‘참외’ 쪽 ‘사과’에 대하여는 한자 없이 표제어를 삼는다.

이희승 선생의 《국어대사전》에서 ‘사과’를 찾으면 ‘사과참외’를 가보라 되어 있고 거기 가면 이런 기술을 보게 된다.

사과참외: 살이 아주 연하고 물기가 많은 참외. 개구리사과, 먹사과, 백사과, 청사과 등이 있음.

총독부 사전에서의 기술과 비교할 때 우선 ‘크다’는 것이 빠지고 대신에 ‘살이 아주 연하고’란 표현이 들어가며, 종류도 백색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열된 것을 볼 수 있다(선행 사전들을 일일이 점검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신기철 형제분의 《우리말큰사전》에 오면 ‘살이 썩 연하고 달며 물이 많음.’이라 하여 ‘맛이 달다’는 특질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은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다만 ‘사과(-瓜)’의 반토막 한자 병기를 하지 않은 것이 다르다.

그런데 30년대 후반의 장날 광경과 오고가는 대화로 필자가 회상하는 것은 맨 처음에 든 총독부 사전의 기술 내용에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 놀란다. ‘백사과’의 기억만이 또렷하여 다른 종류가 더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자신이 없지만, 일단 덩치가 크고(홀쭉하지 않다) 아래가 빨지 않고 당당해 보이는 것이 백사과였다. 그러나 참외를 살 때 특히 그것을 선호하여 골라 산다든지, 사왔을 때 그것이 더 인기가 있었다든지 하는 기억은 없다(이때에는 상당한 개량종이 나와 ‘백사과’쯤은 이미 인기 품종이 아니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1) 瓜가 아닌 菘를 쓴 것은 ‘외’ *concombre*에 대하여도 볼 수 있는데, 착오일 듯.

능금 쪽의 사과 즉 ‘沙果’가 아닌 다른 한자어 ‘사과’의 존재를 여기 소개하기로 한다. 흔히 쓰이지 않는 글자를 포함한 ‘傻瓜’, 현대의 중국 발음은 권설음의 *sh*로 시작하는 *shāguā*이다(한국음은 그대로 ‘사과’).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그런 뜻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이다. ‘크기만 하고 맛이 없는 참외.’ 말하자면 멍청한 참외가 원 뜻이었던 것이다.

어렵고 이상하게 생긴 ‘傻瓜’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과참외’를 위하여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능금’에 대한 ‘사과’의 우위가 점점 확고해지는 가운데, ‘사과참외’도 ‘沙果’의 혜택을 입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크고 물이 많은 것뿐이었는데, 살이 연한 것으로 나아갔다가, 드디어는 맛까지 좋아진 것이라 하겠는데, 이것은 ‘사과참외’ 그 자체의 품질 향상에 의한 것이라 하기보다는, ‘沙果’라는 우군의 도움으로 이미지의 동반 상승을, 아마도 뜻하지 않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경우라 해야 할 것이다.²⁾

중국어 자체에서는 沙果(특히 현대어에서는 ‘뉘’가 붙어 *shāguor*)와 傻瓜 *shāguā*가 동음이의어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 苹果에 밀린 沙果는 국어에서와 같은 우위에 서지도 않는다. ‘사과’의 일종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전에서 빠지지 않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

‘傻瓜’의 성조는 상성이다. 고대에서라면 중국어의 상성은 국어 한자음에서 상성 또는 거성으로 반영된다. 좀 늦은 시기에라면 상성 즉 제3성은 국어의 평성에 대응한다. ‘사과참외’의 ‘사’가 장음 아닌 단음이게 된 경위를 어느 쪽에 구해야 할지 모르나, ‘傻瓜’의 기록이 중국에서도 오래지 않은 듯하므로, 후자의 경우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요즘의 사전에서 ‘크다’는 특징을 빼놓고 있는 것을 필자는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중국어에서 ‘傻瓜’ 이외에 ‘傻大瓜’라는 표현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2) ‘사과’와 ‘능금’이 아직도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지방도 있다. 가령 앞면에 ‘청송 사과라 크게 쓴 상자 옆면에 ‘능금은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음을 본다.

것을 보기 때문이다(우연의 일치이겠지만, *melon*을 소급하면 희랍어 *mēlopepōn*에 이르는데, 그것은 *mēlon* ‘apple’ + *pepōn* ‘a species of large melon’).

2

‘참죽나무’와 ‘가죽나무’도 또 다른 짝을 이룬다. ‘느릅나무’ 등의 경우도 그렇지만 뒤에 붙은 ‘나무’ 없이 앞 부분만 따로 떼어 발음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그 끝이 ‘ㅂ’인지 ‘ㅁ’인지, ‘ㄱ’인지 ‘ㅇ’인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느릅나무 ∞ 느릅나무, 참죽나무 ∞ 참중나무 등.

수목도감 종류의 책에서도 ‘느릅나무(느릅나무)’, ‘참죽나무(참중나무)’와 같이 비음에 동화된 형태를 괄호 안에 병기시켜 놓은 것이 그런 불안의 발로 이겠거니와, 지금 필자는 ‘참죽’, ‘가죽’의 ‘ㄱ’이 ‘ㅇ’ 그리고 ‘ㄴ’으로, ‘죽’은 ‘중 <둥 < 튕>’을 거쳐 ‘툼’에 소급되는 것임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툼’은 樗의 자음).

한자로 ‘眞僧木, 假僧木’이라 한 것은 ‘僧=중’을 기준으로 ‘참중나무’와 ‘가중나무’를 한자화한 경우이다.

‘참죽나무’는 ‘참’을 떼고 ‘죽나무’라 하기도 하거니와, ‘가죽나무’는 ‘개죽나무’라 하기도 하고 다시 그 둘을 중첩시켜 ‘개가죽나무’라 칭하는 등 변이의 폭이 제법 넓다.

한자로는 본래 ‘樗’과 ‘檟’로 구별되는 나무들인데, 이를 달리 불러 ‘香樗’과 ‘臭樗’이라 하는 데서 이들의 불행한 짝지움이 출발한다.³⁾ 외형이 비슷해서 연결이지만, 손해 보는 것은 가중나무 쪽이다. 하나는 귀하고 향기로우며 어린 잎을 식용하며 고급 가구재가 된다. 하나는 천하고 냄새가 고약하며 가로

3) ‘樗’을 ‘동백꽃’으로 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의 ‘國訓’. 滿和辭典이 *jalgangga moo* ‘참죽나무’를 ‘동백 *tsubaki*’로 오역한 것은 그 때문. *Chanchin*이라 했어야 할 자리. 오페라의 여주인공 이름을 일본에서 ‘춘희’(樗姬)라 번역한 것은 바로 ‘樗’을 ‘동백’ *Camelia*로 보기 때문인데, 우리에게는 좀 미묘한 존재다.

수로 심기도 하고 혹 조경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번식과 성장이 너무 왕성하여 정원가들에게는 잡목(*weed tree*)으로 혐오되기 일쑤다. 둘 다 중국 원산의 외래목이지만, 분류학상으로는 과를 달리하여 멀구슬나무과 *Melbacea*와 소태나무과 *Simaroubacea*의 소속이다.⁴⁾

《훈몽자회》에 나타나는 모습부터 보자.

椿 튕나모 춘

樗 개등나모 더 俗呼虎目樹 又曰臭椿

(성조상으로는 두 글자만 제외하고 모두 평성, ‘개등’은 RH.)

외견상 ‘튕나모’는 자훈(字訓)이요, ‘춘’은 자음(字音)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튕’도 원래는 이 글자의 음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쪽에 자음의 정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椿’은 ‘丑倫切’ 또는 ‘敕倫切’이니, 《東國正韻》이 제시한 ‘튕’이 체계에 맞는다. 그 성모(聲母)는 ‘徹’, 전통적 술어를 써서 말하면 설상음(舌上音)의 차청(次淸), 권설화되어 현대의 병음 자모로는 *ch*로 표기하니 훈몽자회의 ‘춘’은 현대의 *chun*에 해당되는 형태이다(‘椿’의 음부(音符)라 할 ‘春’(춘)의 연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부차적인 것이겠다).⁵⁾

대찰음(*affricate*)화된 두음을 지닌 ‘춘’이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한국 한자음의 체계에서 볼 때, 과속이요 일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튕(>튕)이 위로 밀려 자훈(字訓)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茶’의 경우를 보면 사정이 더 분명해진다. 이 글자는 그 음이 直加切인데 뒤에 *chā*로 발전하였다. 《훈몽자회》에서 ‘茶’는 ‘차 다’, 정통의 ‘다’가 자음이

4) 참죽나무 *Cedrela sinensis* A. Jussieu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5) 운학에서의 설음은 지금의 치음(齒音)에 해당하는 것인데, 설두(舌頭), 설상(舌上)의 구분이 있다. 전자는 端, 透, 定, 泥의 계열이요, 후자는 知, 徹, 登, 娘의 계열이다.

요, 앞선 발음 ‘차’는 자훈(字訓)의 자리에 있다(茗: 차 명). ‘다’와 ‘차’의 경합은 다음 한자어들에서 확인된다(우리의 한자 사전들에서 ‘차’를 정음, ‘다’를 속음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다식(茶食), 다과(茶菓)

차례(茶禮), 차종(茶鍾)

일본어에서도 *ta*가 ‘茶’의 정음이요, *tya[cha]*는 그 속음이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국어에서의 ‘다’ ‘차’의 관계에 필적한다. 일본어에는 *sa*라는 또 하나의 음이 있는데, 이것은 鋤加切의 반영이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후세에서의 국어의 구개음화와 혼동할 우려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시대가 달라, 《훈몽자회》의 자료와는 무관하다. 또한 중국어에서의 대찰음화는 설상음에서의 변화인데 반하여 국어의 음운 체계는 설두·설상의 구별 같은 것에는 무관한 것이다.

다시 《훈몽자회》의 ‘툽나모 춘’으로 돌아가자. 앞에서 《동국정운》이 세운 ‘툽’이야말로 ‘樅’자의 정통음이란 말을 한 일이 있는데, 그 ‘툽’이 ‘툽’으로 변환 과정을 상징하기는 어렵지 않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종의 이화 작용으로 ‘ㄴ’이 ‘ㅇ’으로 변환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솔(松明) > 광솔

한새 > 황새

한쇼 > 황소

힌솔 > 행솔(행소리: 지명)

이 ‘툽’이 ‘樅’의 자음으로 인식된 예가 《소학언해》에 있음을 남광우 선생의 《고금한한사전》이 보여 준다. 권6, 68~70에 보이는 사람 이름인데, 본문과 언해에 걸쳐 여섯 번 나타난다. 색인을 통해 확인하면,

椿_통津_진이 椿_통과 津_진이 椿_통이

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색인은 단국대학교 간행).

후세의 자료지만, 거꾸로 자음의 ‘춘’이 자훈 속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제시하면 《한청문감》에서는 ‘春樹 춘나모, 臭春樹 개죽나모’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툭나모’의 사촌으로 못된 것이 ‘개툭나모’이겠으나, 여기서는 ‘툭’의 기음이 제거되어 ‘개둥나모’로 등록된다. 이렇듯 유기성이 제거되는 현상은 가끔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규칙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다.

이제 ‘개둥나모’의 ‘둥’의 영향으로 ‘툭나모’가 ‘*둥나모’로 바뀔 차례이겠고, ‘개’에 대한 대립형으로 ‘참<츰’이 추가되었겠다. ‘츰’(眞)은 ‘가’(假)를 불러오고, ‘이’은 ‘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등, 연상과 유추의 분방한 작용의 결과로 우리들의 ‘참죽나무’와 ‘가죽나무’는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외견상 한자어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과참외’의 ‘사과’와 ‘툭나모’(죽나무)의 ‘툭<툭’에 한자를 배정하는 작업을 해 보았다. 필자가 상정한 것은 ‘傻瓜’와 ‘椿’이다.

단어들 사이에도 대립 관계가 있다고들 말한다. 거기에는 시혜적인 것도 있고, 견제적인 것도 있겠는데, 어떤 단어의 짝이 변화를 보이는 과정에서, 그것이 형태상의 변화이건 의미상의 변화이건, 그 상호 관계의 일면을 관찰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